

올해 보리·마늘·양파 생산량 늘어... 재배면적 증가 영향

올해 보리 생산량은 15만1401t으로 1년 전보다 38.0% ↑
 양파 생산량 152만969t으로 1년 전보다 32.9% ↑
 마늘 생산량은 33만1741t으로 1년 전보다 9.3% ↑

올해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이 모두 늘었다. 잦은 비로 작황이 부진했는데도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리 생산량은 15만1401t으로 1년 전보다 38.0%(4만1674t) 늘었다. 이삭이 나오는 출수기(4월 중순~5월 상순)에 잦은 비로 인한 습해 피

해와 병해충 증가로 생육 상태가 원활하지 않았는데도 이삭이 여무는 시기(5월 중순~6월 중순)에도 일조시간 부족으로 10a(1000㎡)당 보리 생산량은 1년 전보다 14.9%(56kg) 감소한 321kg 그쳤다. 그러나 재배면적이 4만7237ha(헥타르·1ha=1만㎡)로 1년 전보다 62.3%(1만1814ha) 늘면서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

시·도별 보리 생산량은 전남이 5만 9662t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생산량이 39.6%에 차지한다. 전남 다음으로 전북 5만9112t(39.0%), 경남 1만 8603t(12.2%) 순이다. 양파 생산량도 152만969t으로 1년 전보다 32.9%(37만6476t) 증가했다. 지난해 양파 가격 상승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급증한 영향이다. 양파 재배면적은 2만6425ha로 1년 전보다 35.2%(6887ha) 늘어났다. 다만 1~2월 겨울 한파로 초기 생육이 부진하고 알이 굵어지는 시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10a당 생산량은 5756kg으로 1년 전보다 1.7%(102kg) 감소했다. 시·도별 양파 생산량은 전남이 전

체 생산량의 36.7%에 해당하는 55만 8659t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36만 1120t(23.7%), 경북 21만2066t(13.9%)이었다. 마늘 역시 기상여건 악화로 10a당 생산량은 줄었지만 재배면적이 늘면서 전체 생산량이 1년 전보다 늘었다. 마늘 생산량은 33만1741t으로 1년 전보다 9.3%(2만1816t) 증가했다. 마늘 재배면적은 2만1835ha로 1년 전보다 9.3%(2만1816t) 증가했다. 마늘 재배면적이 늘면서 10a당 생산량은 1170kg로 4.2%(51kg) 감소했으나 재배면적이 14.0%(2만1835ha→2만1835ha) 늘어났다. 시·도별 마늘 생산량은 경북이 8

만4952t으로 전체 생산량의 25.6% 차지하고 있었다. 뒤이어 경남 7만 9363t(23.9%), 전남 6만89t(18.1%), 충남 4만2464t(12.8%) 순으로 나타났다. 홍병석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장은 "보리의 경우 지난해 파종기의 잦은 비로 파종 시기를 놓쳐 재배면적이 반씩 감소했을 뿐,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12년 이후 시장가격 및 농협 계약단가 인상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파와 마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가격에 따라 3~4년 간격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올 3분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난 20일 본점 3층 중회의실에서 3분기 경영전략회의를 열었다.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을 비롯해 임원진 및 센터장, 전 영업점장, 부·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2분기 영업점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시상식과 경영 성과 분석 발표, 본부부서 2분기 실적 리뷰 및 3분기 전략 발표 등이 이어졌다. 임용택 은행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빠른 대처와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영업방식, 조직체계 변화 등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북은행의 보다 나은 내일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분발해 주기 바라며, 따뜻한 금융의 실천에도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도교육청에 '우리 농산물 창작동화책' 500여권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20일 전북농협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전북도교육청과 다문화 가정 에 '우리 농산물 창작동화책' 500여권을 전달했다. 이날 도교육청에 전달된 도서는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에서 주최한 창작동화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작품을 엮은 동화책으로 도내 41개 초등학교에 배부되어 지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로 만든 음식의 우수성과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총 5회에 걸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응모된 3300여편 작품 중 50편을 엄선하여 5권으로 나누어 동화책을 제작했다. 박병철 전북농협 전북노조 위원장은 "이 책을 보고 듣고 지라난 아이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우리 농업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농협 임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납부한 화비로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화책 발간 사업 뿐만 아니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과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등 농업과 농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어름휴가철 추석명절, 지역축제'가 많은 하반기에 고객의 금융편의 제공을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이동점포 방방곡곡 찾아가 금융서비스 제공

자치단체 각종 행사 방문
 고객들에게 편의 제공
 현금입출금·외화 환전 등
 각종 금융서비스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어름휴가철 추석명절, 지역축제'가 많은 하반기에 고객의 금융편의를 제공을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를 탑재한 차량형 이동점포인 'NH Wings'를 이용, 휴게소 및 축제현장을 돌아다니며 신권 교환은 물론 현금입출금, 계좌이체, 외화환전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43곳에서 금융서비스 제공했으며, 올 해 상반기

에는 총 60회·361일간 지역행사현장에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방방곡곡 60여 지역행사현장을 찾아가며 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에서는 8월 진안수박축제, 9월 무주반딧불축제, 10월 김제지렁이축제·정읍구절초축제·진안홍삼축제·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등 6개의 지역축제에 참여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금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1,149개의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게소에도 고객의 금융서비스이용 불편이 없도록 전국 어디에서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점포를 운영 중에 있다. 이동점포 문의·신청은 NH농협은행 전북본부(063-240-3215)로 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우체국은 지난 19일 전주우체국 작은대학 제1기 졸업식을 했다.

전주우체국 작은대학 졸업생 어르신들 학사모를 쓰다

30여명 첫 졸업생 배출 제1기 졸업식

전주우체국은 지난 19일 전주우체국 작은대학 제1기 졸업식을 했다. 전주우체국 작은대학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5월 개교식을 하여 30여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세 개 교육과정을 운영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고려수지침 북전주지회 등 '지역사회의 협조와 재능기부'로 인해 더욱 의미있는 작은대학 운영'이었다. 전주우체국(국장 박찬혜)은 "작은대학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기 전주우체국 작은대학 운영 계획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우체국은 지역사회의 소통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졸업생들은 "우체국 덕분에 평소 관심 있는 수업도 무료로 듣고 또래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도 컸다"고 깊은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장례시설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은 지난 19일 협회 회장실에서 (유제송라이프대표이사 김인진)와 장례시설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는 "회원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협회는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회원사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